

마을굿 연행양상(演行樣相) 고(考) —삼척미로 서낭단오굿을 중심으로—

김 명 자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目 次

I. 머리말	3. 祭儀節次 및 內容
II. 삼척 마을信仰	IV. 마을굿의 演行樣相
III. 서낭단오굿의 實際	1. 마을굿의 演行方式
1. 마을개관	2. 미로 서낭단오굿의 特徵
2. 祭堂과 巫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현행되고 있는 마을굿의 한 사례(事例)를 보고함으로써 그 전승상태를 상태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마을굿의 연행방식과 특징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마을굿의 대상은 강원도 삼척군 미로면 서낭단오굿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드물게 남아있는 마을 단위의 단오굿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연2회 현장조사하여 같은 형장에서 같은 무(巫)패들이 행한 마을굿의 절차를 대비하고, 나아가 이를 동해안의 다른 무(巫)패들의 굿거리와 비교해 봄으로써 굿의 연행 방식을 밝히고 마을서낭단오굿으로서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속문화의 연행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구비문학 쪽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다.¹⁾ 그러나 구비문학에서의 굿에 대한 관심은 무가의 사설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글에서는 한 마을의 서낭굿이 어떤 형태로 전승되고 있으며, 또한 마을굿은 어떤 방식으로 연행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²⁾ 이를 위한 글의 전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 방법은 설화의 본질을 연행으로 보고 그 연행활동자체를 중요시하여 연행법칙을 발견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둔 演行中心的方法(performance-centered approach)과 설화가 전승되는 지역의 社會的·文化的 環境에 관심을 기울이는 狀況論的方法(contextual method)으로의 접근이었다. 이 두 방법을 합일시키면서 연행현장과 전승입장의 모든 상황들을 더불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現場論的方法이 있다. 林在海,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202-23.

一, “說話의 現場論的 研究”,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6.

2) 조사자는 마을굿의 한 양상인 팔봉산 堂굿의 조사사례를 보고하고 그 특징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계속 마을단위로 전승되고 있는 마을공동제에 관심을 두고 민속문화의 전승과 연행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주목할 계획이다. 김명자, “八峰山 堂굿의 調査報告”, 『學術研究發表論集』, 문화재연구소, 1990, 19~49.

먼저 II장에서는 삼척 마을신앙에 대한 기존의 조사자료와 조사자가 직접 현장조사한 내용을 개관하고 단오굿에 주목하였다.

III장에서는 '91년(음 5월 5일)에 현장조사한 삼척미로 서낭단오굿에 대한 내용과 절차 등 진행상황을 순서대로 상세히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앞의 내용과 다른 굿패들이 행한 굿거리를 비교하고 '92년(음 5월 5일) 현장조사 내용을 대비하여 연행방식을 살피고 이어 미로마을 서낭단오굿의 특징을 밝혔다.

II. 삼척의 마을 신앙(信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삼척사람들은 귀신과 무당을 매우 숭상한다”고 하였다. 이는 신라 때 나라에서 중사(中祀)를 거행하였던 태백산맥(太白山脈)을 비롯하여 삼척의 모산(母山)인 두타산의 두타산사(頭陀山祠), 그리고 근산사(近山祠) 등의 신앙처에서 크게는 국가의 수호신으로, 작게는 지역 마을, 심지어는 가정, 개인의 수호신으로 여겨 산신을 위로, 제사함으로써 국태민안과 개인의 소원을 기도하였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없으나 사직단(社稷壇), 선농단(先農壇), 영성단(靈星壇), 그리고 삼척지역 각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었던 이사(里社)³⁾ 등은 그 지역을 수호해주는 토지신과 농사를 담당하는 농신과 곡신을 위하는 제단으로, 이곳에서 기우제 및 질병에 관한 기도를 하는 신앙처로 기능하였다.

특히, 삼척의 풍속에 있었던 오금잠신(烏金簪神)에 대한 제사는 음력 5월5일 단오날에 무당들을 모아 행한 큰 제사⁴⁾로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며 규모면에서도 대단한 것이었다. 지금도 삼척의 각 마을에는 자연촌마다 성황당이 많이 남아 있어 그 유래를 짐작할 수 있으며, 비록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주로 설날 그믐날, 혹은 정월대보름에 제를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1년 삼척의 어촌마을에 남아있는 성황당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삼척 덕산리(德山里) 마두마을에 해성당과 서낭당이 있어 음력 정월 보름에 제를 올린다고 하였다. 근덕면 초곡리(草谷里) 새일골에서는 정월 보름에는 제사를 올리고 3년에 한 번 단오일에 도신굿을 한다. 원덕읍 신남리, 원덕읍 갈남리, 원덕읍 호산리에서도 바닷가에는 해성황당을, 그리고 마을 산중턱에는 성황당을 두고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제를 올리고, 이외에도 삼척읍 정라진에도 해성황당과 성황당이 있어 봄철에 낱을 택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굿을 한다. 또 후진리에도 이러한 성황당이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어촌마을로 주민들의 생활은 대부분 반농반어로서 농사는 성황당이, 해사는 해성황당이 맡고 있으며, 제사는 유교식으로 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1번씩 무당굿을 하였는데, 굿은 성황당과 해성황당에서 하나 해성황에 치중해 주로 바닷가에서 한다. 그러나 굿은 대부분 오래전에 소멸되었다.

산간지역에도 자연촌 단위로 성황당이 많이 있는데, 도계읍 신리에는 도성황당(都城隍堂)이 있고 자연촌마다 동성황당(洞城隍堂), 가정에는 개인성황당(個人城隍堂)이 있다. 음력 정월 보름 자정에 도성황제를 지내고 이어서 보름날 아침에 자연촌 단위의 동

3) 현종2년(1661) 이곳에 왔던 부사 許穆이 각 마을에 유지하여 설치한 것으로 “神明을 공경하고, 향리의 화목을 꾀하고, 풍속을 두터이하여 인심을 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삼척군지, 291쪽 참조.

4) 李能和 지음, 李在崑 옮김, 『朝鮮巫俗考』, 東文選, 1991, 266~270. 李昌植, “三陟地方 烏金簪祭의 構造와 意味”, 『江原 民俗學』, 강원민속학회, 1990, 45~61쪽 참조.

성황제를 지낸다.⁵⁾

1991년에 조사자가 현장조사⁶⁾한 삼척군 노곡면 하월산리에서는 마을안에 작은 당숲에 싸인 당(堂)집형태의 성황당을 두고 성황신과 수배신을 모시고 있다. 매년 음력 5월 5일 아침에 단오제를 올리고 또 정월과 동짓달에는 일진을 보아 좋은날을 택일하여 밤중에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마을사람 중 생기를 보아 제관과 당주를 선정하고 유식형태(儒式形態)로 조용히 행하며 특히 정월고사는 성황고사보다 거릿고사가 중심이 되어 천신(天神)과 잡신에 제사한다.

삼척군 가곡면 탕곡리 대촌마을에서는 솔밭거리라 불리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당숲을 성황당으로 삼고 있는데, 과거에는 당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성황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당에는 성황님과 수배를 모셨으며,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정월14일 자정) 순번제로 해당되는 4명의 유사 중 한 집이 '당제사 봉하는 주인'이 되어 제물을 장만하고 儒式形態(유식형태)로 제(祭)를 지낸다. 마을 성황제를 지내고 난 후에야 개인 가정에서도 집안고사를 지내며, 음력 4월8일날에는 부엌기둥에 걸어두었던 '산'을 각자 모시는 나무나 바위에 가져다 걸어두고 치성을 드리는 '산뎡이'를 한다. 이 마을의 경우 '산뎡이'는 남자들이 친척들 몇 집과(종반간에) 함께 제물을 준비하여 산으로 가 치성을 드린다.

탕곡리 대촌과 이어진 골짜기의 끝에 자리잡고 있는 절골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 당집을 두었다. 산과 이어진 당숲에 싸여 있으며 주위를 호석으로 둘러쌌는데, 성황당은 원래 오래된 귀팝나무를 성황목으로 하여 들담만 쌓았던 것이나 10년전에 당집을 지었다. 내부에는 한지에 성황사신위(城隍祠神位)라고 신위를 써 붙여 두었다. 제(祭)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유식형태(儒式形態)로 지낸다.

이상에서 볼 때, 대부분의 마을에서 정월대보름에 치중하여 굿이나 제를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근덕면 초곡리에서 3년에 한번씩 단오일에 도신굿을 하고 노곡면 하월산리에서 단오제를 지낸다.

최길성 교수에 의하면 동해안이라 하더라도 경상북도에서 단오날 별신굿을 거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강원도에서 5월 단오날 별신굿이 거행되는 곳은 다섯(강릉을 포함하면 여섯곳) 군데가 되며, 그 밖에 5월 중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열두 군데라고 한다. 이로 본다면, 동해안, 그것도 영동 해안지역에서 국한하여 5월 단오 별신굿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고 하였다.

1991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현행되고 있는 산간지역의 산신제, 서낭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회신된 900여 지역 중에서 5월 5일에 제(祭)를 지낸다고 한 지역은 8마을로 보고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5) 삼척군지, 1984. 293~296쪽 참조.

6) 예능민속연구실 무형민속문화재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행한 현지 대담조사, 김종대, 김명자, 송민선 조사, 1991, 6. 12~6. 17.

7) 김선풍 글 김수남 사진, 『강릉단오굿』, 悅話堂, 1971, 141쪽.

전승지역	마을성격	제의명칭	제의장소	제의일시	제의주관	주제물
강원도 원주군 흥업면 매지 3리(회촌)	산촌	당제	제당	5월5일 0시	주민제관	통돼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12리(고두암)	산촌	태백 산신제	성황당	"	"	돼지머리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농촌	산신제	제당	"	농악대	"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도직리(연어골)	농촌	산신제	신목(神木)	5월5일04시	주민제관	"
강원도 삼척군 미로면 하거노리(둔점)	농촌	당고사 서낭굿	성황당 신목	1월1일9시 5월 5일	주민제관 무(巫)	"
강원도 삼척군 미로면 내미로리(조지전)	농촌	성황제	성황당	5월5일09시	주민제관	"
강원도 삼척군 미로면 무사리	농촌	서낭고사	성황당	1월1일유시 5월5일인시	대잡이(男 子)	"
경북 청송군 파천면 관리(외관리)	산촌	동제	신목(神木)	5월5일02시	주민제관	고기

이로써 볼 때 굿을 하는 곳은 둔점마을로만 나타나 있으나 이들 마을이 산촌,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단오제의 전승현장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의미에서 단오제가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이 들도록 신에게 기원하는 파종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⁸⁾이라고 본다면 해안지역으로만 국한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적 한계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현행되고 있는 향토신제(鄕土神祭)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의(祭儀)이자 축제라고 하는 강릉단오제⁹⁾에 관한 문헌적 근거는 조선초기 남효온(南孝溫:1444~1492)의 『추강냉화(秋江冷話)』(1677년)에서 그 기록이 나타나지만, 경종(景宗:1721~1724)때 간행된 『강릉지(江陵誌)』에 의하면 그 역사가 고려초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추강냉화』에 의하면 “영동 민속에 매양 3, 4, 5월 중에 택일을 하여 무당과 함께 산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기록은 반드시 강릉 단오제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영동 민속을 가리키고 있으나, 그 시기 중 5월이 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의식이 대관령성황제(大關嶺城隍祭)의 진행과 흡사한 점은 강릉단오제를 추정케 한다¹⁰⁾고 하였다.

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행해지는 미로 서낭단오굿은 근원설화나 역사에 관한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거한 자료의 내용과 그 전승지역, 의례의 절차, 연행형식 등으로 보아 강릉단오제와 맥을 같이하는 단오굿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음에서 그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8) 앞책 143쪽

9)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10) 『重要無形文化財解説(놀이와 儀式)』,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5, 231쪽.

Ⅲ. 서낭단오굿의 실제(實際)

1. 마을개관

삼척군의 현 위치는 강원도 영동의 최남단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은 전체가 동해바다에 접하고, 서쪽은 태백시에, 서북은 정선군 임계면에, 서남은 경북 울진군과 봉화군에, 북은 동해시 삼화동과 인접하고 있다. 산악지대가 많은 관계로 평야는 적어 농산물은 풍부하지 못하나 강원도내에서는 드문 이모작지대(二毛作地帶)이며, 임산물과 석탄, 석회석의 광산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조사지인 미로면은 군의 북부에 위치하며, 하거노리는 삼척시에 도계, 태백방면으로 8km정도 올라간 곳으로 삼척시내에서 시내·외버스를 이용하면 15분정도 걸린다. 둔점마을 가운데로 난 38번 국도변에는 영동선의 미로역이 있고, 그 앞으로 미로면 사무소가 있다. 리(里)의 서쪽에는 두타산에서 남동으로 내려온 줄기로 적병산(赤屏山)이 자리잡고 있으며, 오십천 물과 고천(古川)의 물이 합치는 곳인 적벽강이 흐른다.

하거노리라는 지명은 이 리(里)에서 오십천을 건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윗쪽에 있는 곳을 ‘웃그는 나드리’ 아랫쪽에 있는 곳을 ‘아래 그는 나드리’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거노리(巨老里)가 되었다고 한다. 하거노리의 남쪽으로 상거노리가, 그리고 동쪽으로 무사리, 북쪽으로 사둔리가 접해 있다.

현재 하거노리는 둔점¹¹⁾ 청골, 큰말, 심두득, 새마을의 자연촌이 1, 2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시 9개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면적 297.4ha에 논이 17ha, 밭이 55.4ha로 논에는 벼와 마늘을, 밭에는 채소를 경작하여 삼척시장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인구는 1759년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거노리(巨老里)라 하여 49호에 남자가 159명, 여자가 12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6년에는 99호 532명, 1962년에 193호 1,079명, 1982년에 218호 1,119명(1리에 192호 982명, 2리에 26호 137명)이다.

1991년 6월에 한 조사에 의하면 하거노리의 인구는 200가구에 남자 397명 여자 407명으로 연령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성별 \ 연령	연령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남	39	46	72	53	60	74	47	6	397
여	40	50	72	51	60	68	56	10	407
계	79	96	144	104	120	142	103	16	804

1991년 6월 현재, 미로면 사무소제공

성씨는 삼척 김씨가 68호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릉 최씨가 37호, 그리고 박씨, 이씨 등이 사는 각성마을이다. 리(里)내에 미로국민학교와 미로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삼척시에 있는 학교를 이용한다. 둔점마을 안에는 여서낭 옆에 장로교회가 1곳 있어 신도수가 50여명 정도 되며, 그 외에는 주로 구방사, 천은사 등 주변의 절에 다니고 있다. 주위로는 레미콘 공장들이 있고 개방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속문화가 비교적 강하게

11) 둔점은 1~3반이 해당하며 인구수도 제일 많아 리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이곳에 여서낭이 있다. 일제시대때 일본군이 주둔하였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남아 있는 곳이다. 각 가정에서는 선달 그믐날 저녁에 떡국제사를 지내고, 설날 아침에는 밥제사를 지낸다. 그 외에도 정월보름제사, 2월 초하루 영등, 풍신고사, 그리고 오월 단오날에는 단오차례도 지내고 있다. 산맥이 등의 개인치성제를 비롯하여 성주, 안택, 조왕 등의 집안고사도 지금은 많이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지내는 가정이 남아 있다.

2. 제당(祭堂)과 무(巫)

이 마을의 당(堂)은 둔점마을에 위치하며 “둔점성황당” “남서낭당”이라고 부른다. 당(堂)은 당집형태의 성황당과 서낭나무로 나누어져 있으며, 성황당은 둔점에서 미로1리교를 지나 골마리로 들어가는 길의 오른쪽 낮은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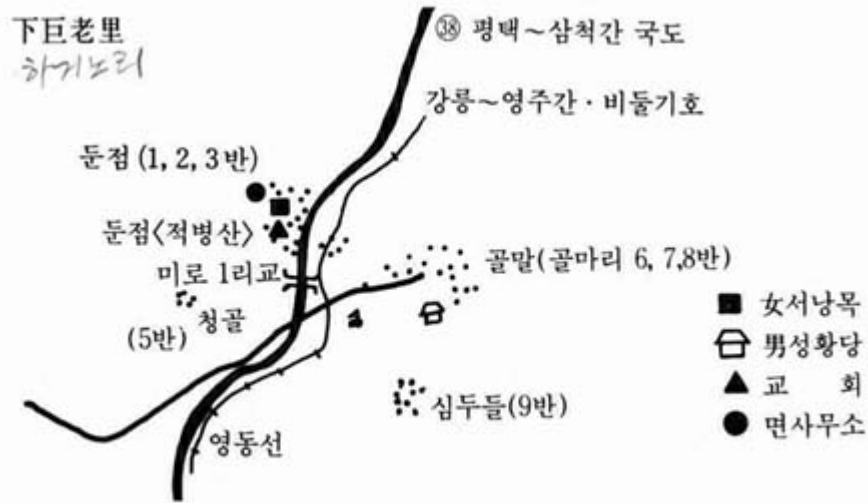
이 당(堂)은 1971. 4. 25. 신해년에 새로 건립하였는데, 함석지붕을 얹은 시멘트 건물로 420×260×210cm 규모이다. 내부에는 낮은 시멘트단(245×22×폭 70cm)을 만들어 두었으며, 정면 벽면에는 시멘트 벽에 직접 오른쪽에서부터 토지대신, 성황대신, 성화대신신위, 단군대왕, 수부당이라고 새기고 흰페인트로 토지대신, 성황대신신위, 단군대왕이라고 옆에 덧썼다. 수부당이라고 쓴 곳의 아래는 단을 조금 낮게 하여 높낮이에 차이를 두었으며, 바닥도 시멘트로 하였다.

왼쪽으로 함석 여단이문을 두고 그 위로 한지를 끼운 금줄을 쳤다. 외부 벽면에 오른쪽으로는 성황당을 건축할 때 찬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기부금액이 새겨져 있다. 이는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서툰 글씨로 직접 쓴 것으로 보이며 기부금액은 1인당 1,000원~3,000원 정도이다.

이 성황당의 신(神)은 남신(男神)으로 단오굿을 할 때에는 여기서 먼저 당신(堂神)을 대내림하여 강가에 있는 여서낭으로 모셔가 굿을 한다.

여서낭은 마을 밖으로 흐르는 강가에 오래된 신목을 중심으로 한 몇그루의 당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낭나무에는 조금 높은 시멘트단을 만들고 높이 130cm 정도되는 반타원형의 호석을 쌓았다. 주위에는 비교적 넓은 공터로 돌기둥 그네를 세워 두었다. 단오굿판은 이곳에서 벌어지는데, 당숲 아래로는 구경꾼들이 앉기에 알맞은 공간이 있어 아담한 굿판을 벌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여서낭과 마을안 산중턱에 있는 남서낭은 남성황당에서 여서낭이 사선으로 내려다 보여 마주보게 위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핀 삼척 어촌마을의 경우 해서낭은 바닷가에, 그리고 남성황당은 마을의 산중턱에 자리하고 있음과 비교해 볼 때 강가에 여서낭이 있음은 바닷가 여서낭과 맞먹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형세 및 당 위치도-

-마을형세 및 당 위치도-

이 마을의 단오굿은 올 해(1992년)로 19년째 최분옥(여, 1927년생, 별호:부영이) 무(巫)가 맡아서 하고 있다.

제의(祭儀) 때가 되면 이장이 중심이 된 리개발위원회에서 제의준비를 하면서 아울러 巫(무)를 선정하고 의뢰를 하는데, 의례히 최분옥무(巫)에게 맡긴다. 그러면 그가 몇 명의 제자무(巫)들과 함께 와 굿을 한다.

최무(巫)는 원래 이 마을 출신일 뿐만 아니라 벌써 19년째 이 굿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마을의 사정 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39세에 신이 올랐으나 5년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결국 무(巫)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별히 배우지 않고도 나름대로 신명을 듣고 보고하여 나오는 대로 굿을 한다. 젊어서는 부산의 김중도, 성순네 굿패들과 함께 다니다가 지금은 독립하여 제자무(巫)들을 데리고 주로 삼척, 강릉 등으로 산택이 다니기가 바쁘다.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로 단오굿에서 함께 일한 무(巫)는 다음과 같다.

○ 남용녀:(여(女)·1944년생) 최분옥무(巫)의 신딸로 직접 내림굿을 받았다. 별호는 미로꼬마로 이 마을 출신이다. 신병을 심하게 앓아 21세에 아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현재는 목호에 거주하고 있다. 집에서는 골매이 할아버지, 칠성, 산신, 세준, 장군을 모신 신단을 차려두고 무업(巫業)을 하고 있다. 남무(巫)에게는 천신(天神)이 내렸기 때문에 부처는 모시지 않는다.

○ 김희성:(여(女)·1932년생) 최분옥무(巫)와 함께 굿을 다니며 삼척에 거주한다.

○ 한순녀:(여(女)·1952년생) 최분옥무(巫)의 제자무(巫)로 31세에 신이 내렸다. 살림형편이 어려워 고생을 심하게 하였으나 신병을 앓지는 않고 신이 내렸다.강릉 교동에 거주하며, 1992년 미로 굿에는 다른 패의 굿일로 불참하였다.

○ 김용철:(남(男)·1954년생) 장구쟁이이면서 점도 친다. 1992년 굿에는 한순녀巫(무) 대신 굿거리를 맡아 군웅굿을 하였다. 동해시에 거주한다.

○ 정은채:(남(男)·1922년생) '92년 굿에 불참한 한순녀무(巫) 대신 참석하여 째이로서

한몫 하였다. 삼척 교리 출신으로 35년째 악사로 돌아다녔는데 특히 삼척의 제보며느리 패와 근덕, 대장 등지로 많이 다녔다.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무(巫)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번에 처음 미로 단오굿에 참석하였다.

무(巫)에 대한 사례는 일정한 계약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할 닻”으로 마을에서는 제관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절할 때마다 오천원, 만원씩을 별비(別費)로 내놓는다. 그러나 대략 50만원 이상으로 내정해두고 그 몫을 준다. ‘92년에는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굿을 하였기 때문에 별비의 요구가 적었다. 이들에 대한 식사와 잠은 도가집에서 맡게 된다.

3. 제의절차(祭儀節次) 및 내용(內容)

가. 제의준비과정(祭儀準備過程)

이 마을의 서낭제는 이장을 중심으로 한 각 반의 반장과 리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된 리개발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단오굿 때는 제일 일주일 전에 모여 제의경비에 대한 문제, 무(巫)의 의뢰, 제관선정, 상품구입건 등에 관해 의논한다.

제의경비는 정월성황제사의 경우에는 대략 10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2,000평 정도 되는 동답에서 받는 소작료 2만원과 총 120만원(1991년 현재)정도 예금되어 있는 마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으나 오월 서낭단오굿은 약 2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5,000원씩 걷고 나머지는 미로면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는다. 3년전 까지만 해도 호당 걷는 일이 없었으나 마을사람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시 걷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 방법은 10년전까지는 집집마다 지신을 밝아 건립을 하였으나 지금은 반장들이 각 반 별로 거두고, 기업체는 이장과 대표 몇 사람이 방문하여 기부를 받는다.¹²⁾

제관(祭官)은 현관 3인과 도가 1집을 선정한다. 그 방법은 이장이 날보는이에게 가서 생기복덕을 따져 그 해 운이 맞는 사람의 생(生)을 받아온 후 주민등록 명부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아보고 해당자에게 물어보게 된다. 이는 요즘들어 제관일을 맡는 것을 귀찮아 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 집안에 부정한 일이 있거나, 가족중에 깨끗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를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허락을 하면 이를 개발위원회에서 의논하여 확정한다. 1991년에는 임신생(壬申生)이나 병자생(丙子生)이 생기가 맞아 최상호(남, 60세, 하거노리 2반), 석이원(남, 56세, 하거노리 5반), 김옥하(남, 48세, 하거노리 3반)씨가 제관을, 그리고 김진백(남, 54세, 하거노리 3반)씨가 도가를 맡았다.¹³⁾

특히 도가는 제물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어야 하며, 젊은 주부보다는 할머니가 있는 가정이 적합하다. 따라서 이미 여러해 도가의 경험이 있으며, 적극치성자인 김진백씨의 모친이 올해도 제물장만을 하였다.¹⁴⁾

12) 그 결과 ‘91년에는 약 100만원을 제의경비로 예상하고 각 호에서 60만정도, 그리고 기업체 기부로 40만원 정도를 받아 제물구입비로 20만원, 민속놀이 상품구입비로 10만원, 巫의 사례비로 50만원, 나머지는 기타 경비로 사용하였다. ‘92년에는 실제가구수 총 189호에서 영세민과 반장 그리고 기독교인을 제외한 150호에서 78만원을 거두고 나머지는 개인 기업체 기부금으로 총 200만원을 예상하였다. 그 중 제물구입비로 30만원, 민속놀이 상품구입비로 10만원, 그리고 巫의 사례비로 100만원이 지급되었다.

13) ‘92년에는 심의복(남, 丁亥生), 윤용래(남, 甲午生), 전찬백씨가 제관을, 그리고 윤용섭(남, 乙丑生)씨 덕에서 도가를 맡았다. 이는 마을사람 이종성씨가 한달전에 생기를 보아 선정하였다.

제관이 선정되면 남성황당의 여서낭, 그리고 도가집에 금줄을 친다. 예전에는 금기사항이 엄격하였으나 요즘은 많이 약해져서 제관과 도가집에서는 험한 것을 보지않기 위해 외출을 삼가고 상가집에도 가지 않으며 몸을 청결히 하여 부부관계를 금하는 정도다.

제물장은 단오전날 아침에 이장이 도가할머니와 함께 삼척시장에서 봐온다. 깨끗한 것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장을 보며, 특별히 정해둔 가게는 없다. 제물구입 때도 예전과 같은 엄격한 금기를 모두 지키지는 않으나 마음 속으로 조심을 한다.

그 종류는 돼지머리와 문어, 대구포(2마리), 가재미(5마리), 명태(5마리), 소고기, 그리고 과일로 사과, 배, 수박, 토마토, 참외, 꽃감, 대추와 과자, 녹두나물, 두부, 계란, 향, 초, 삼베 등이며, 제주(祭酒)에는 예전에는 도가에서 직접 담아서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청주를 사서 쓰고 제기(祭器)도 도가집 그릇을 그냥 사용한다. 제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돼지머리와 포인데 당일 시장에 돼지머리가 없어 대신 돼지갈비를 올렸다.¹⁵⁾ 떡은 뽕쌀로 둥글게 큰골떡이 떡과 작은 골떡이떡을 집에서 만든다. 이렇게 떡을 만들고 하는 일은 여자들의 일인데 이때에도 젊은여자는 오지 않으며, 도가할머니가 직접한다.

굿은 마을의 강가에 자리한 여서낭에서 행해진다. 굿판의 공간구성을 보면 제단 앞으로 넓은 공터가 있고 당나무와 어우러진 몇그루의 나무그늘 아래로 비닐자리를 깔아 구경꾼들이 앉을 수 있게 하였다. 이 공간을 제의경비 기부자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줄에 달아 나무 위로 둘러 쳤는데 마치 만국기를 친 것 같다. 구경꾼들 뒤로는 옷놀이판이 준비되어 있고 제단을 향하여 오른쪽 옆 강가로는 그네를 묶었다. 왼쪽으로는 굿을 주관하는 측에서 채상을 하나 두고 기부금도 받고 대회를 진행하는 등 굿판의 일을 맡아 하는데 주로 이장과 제관, 반장들이 자리를 지켰다.

제단위에는 굿상을 앞으로 차리고 그 뒤로 개인조상상을 차렸다. 개인치성자들은 제물과 소반을 들고와 서낭주위에 각자 조상상을 놓는데 이때 치성자들끼리 상자리 다툼이 있었다.¹⁶⁾ 도가 할머니도 따로 조상상을 차렸다.

이처럼 단오굿은 마을안 산등성이에 있는 남성황당에서 성황신을 모셔온 후에는 모두가 자리에서 이루어 지는데 여기에서는 마을서낭을 위한 단오굿과 각 가정의 조상을 위한 개인치성, 그리고 마을사람들을 위한 민속놀이가 모두 한 공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¹⁷⁾

나. 제의진행과정(祭儀進行過程)

(1) 당제(堂祭)와 굿의 준비

굿은 巫(무)에 의해 진행된다. 이는 마을의 서당신을 위하고 마을의 평안과 개인의 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예전에는 무(巫)의 굿이 시작되기 전에 제관들에 의한 당제(堂祭)가 올려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근래에는 제관들이 함께 굿상앞에서 절을 한 번하는

14) '92년에는 윤용섭(남, 68세)씨가 도가를 맡았는데 역시 할머니가 계신 가정이었다.

15) 이 일로 巫에게 서낭할아버지가 내려 이장과 도가를 심하게 꾸짖었는데, 이는 정성이 부족하였음을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16) 이는 좀더 서낭과 가까운 가운데 자리로 상을 놓기 위한 다툼인데 조사자가 경북 영덕군 노물리에서 한 조사(1992. 7. 29. 노인당에서)에 의하면 이곳에서는 별신굿 때 개인조상 떡상을 차리는데 서로 자리다툼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 오래 산 사람의 순서대로 명단을 적어두고 자리 앞 쪽을 차지하게 하였다.

17) 祭儀의 演行空間에 대해서는 위도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한 河孝吉님의 글이 있다. “西海岸地方 豐漁祭의 形態와 特徵”, 『中央民俗學』, 제3호, 민속학연구소, 1991.

것으로 간단히 지냈다. 올해도 제관을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역할은 행사를 진행 하고 굿거리 도중에 앞에 나가 무(巫)에게 별비를 주고 술잔을 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무(巫)가 없는 정월 초하루 성황제사는 제관들이 제를 올린다. 이때는 제관과 도가, 이장 5명만이 한밤중에 남성황당에서 제를 올리며, 제물장만도 간단하고 제의절차도 단잔 단배에 독축과 소지올림으로 간단하다. 그러나 단오굿 때에는 성황당에서 행하는 남서낭님 모시는 곳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굿판에서의 사제에 의한 유식형태(儒式形態)의 당제(堂祭)가 점차 미약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굿의 진행은 역시 이들의 몫으로 단오날 아침 일찍 여서낭에 나와 제장(祭場) 주위를 청소하고 구경꾼이 앉을 자리를 깔고 마이크를 설치하며 도가집 할머니를 도와 제물상을 차린다.

이 날은(1991. 음 5.5) 처음있는 도의원 선거유세날이라 유세장에 나가기전에 출마자들이 서낭앞에 와서 미리 절을 하였다. 주무(主巫)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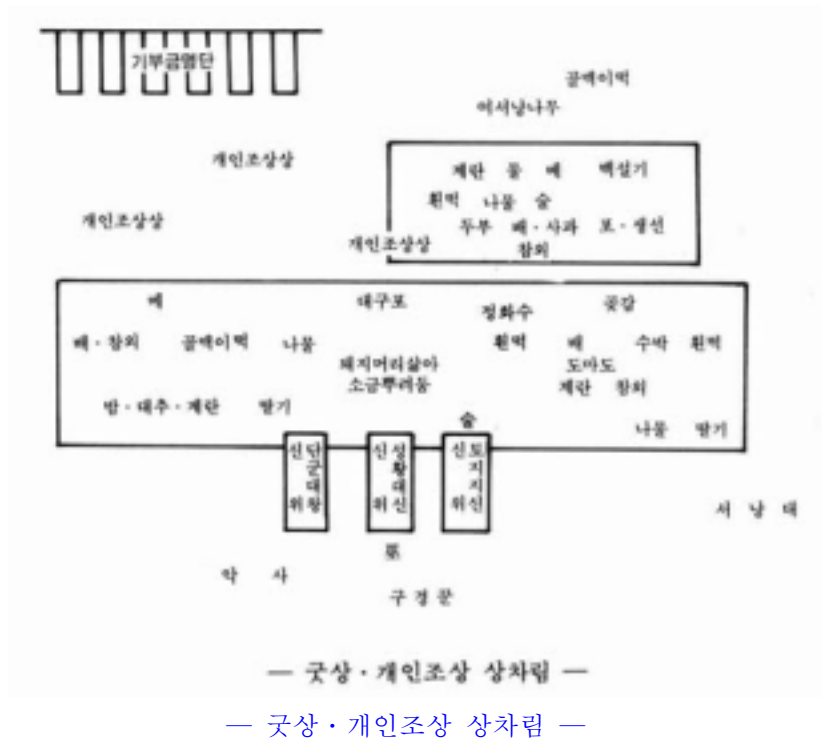
“김씨 갑신생 대주올습니다. 금년에 도의원을 나왔습니다. 서낭님전에 인사하고 나가려고 왔습니다. 이래 인사시키고 가니 당선시켜 주십시오. 모두다 소원성취 발원이옵니다.”라고 축언하며 소지를 올렸다.

당선여부에 관한 점괘를 쳐 주기도 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떤 출마자가 다녀갔는지, 무(巫)의 점괘는 어떻게 나왔는지, 기부금은 얼마를 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¹⁸⁾

이 날 굿판에는 마을사람들이 대부분 유세장에 갔기 때문에 인근 마을에서 온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예전부터 이 마을의 단오굿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구경을 오는데, “단오 보러 간다” “단오하러 간다”는 말을 한다. 마을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유세장에서 돌아와 굿판에 나왔다.

굿상은 제단의 앞쪽으로 놓는데, 작은 반상 4개를 이어 붙이고 흰종이를 깐 후 제물을 올린다. 굿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18) '92년에 만난 리계발위원 중의 한 사람은 이때 무(巫)가 당선될 것이라고 점쳤던 사람이 과연 당선되었음을 보아 믿을 수 없는 미신인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굿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무(巫)들은 한복에 머릿수건을 하고 곳상앞에 공간을 두고 구경꾼들 앞으로 앉았다. 무(巫)악기는 장과 장구, 제금, 팽과리로 장구잡이만 따로 있을 뿐 다른 악기들은 무(巫)들이 특별한 구분없이 맡는다.
(오전 9시 경이되자 할머니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무(巫)드로가 인사를 주고 받았다.)

(2) 부정굿

최분옥주무가 곳상앞에 앉아 징을 두드리며 간단히 부정풀이 무가를 구송하였다. 이어 소지종이에 불을 붙여 곳상위를 훑어낸 후 물바가지에 담고 신칼을 들고 돌다가 칼을 던져 보았다. 물을 세 번에 나누어 버린후 무(巫)들 모두 곳상 앞에 절을 하였다.

이어 무(巫)들은 모두 악기를 치면서 서낭앞에 절한 후 생 대나무로 준비해둔 서낭대를 들고 남성황당으로 출발하였다. 성황당까지 무(巫)들은 타이탄 트럭 뒤에 타고 도가 집에 들러 따로 준비해 둔 제물을 신고 갔다.

(3) 남서낭님 모시는 곳

당(堂)에 도착하여서는 서낭대는 당앞에 기대두고 서낭대신신위를 중심으로 젓상을 차린 후 신명을 쓴 벽면에 한지로 예단을 걸고 굿을 시작하였다.

“성황님네를 모시로다 골매이서낭님네, 서낭님네로 모시워라.

하거노리 오월단오, 이 정성을 마련하니 성황님,
팔도명산 도살님네, 모두 받으세사, 성황님네~“

(계속)

무가 끝에 재수소망을 기원하고, 액을 막아달라고 축언한 후 춤을 추었다. 젓상위의 포를 들고 놀리다가 신칼, 부채, 요령을 들고 춤을 춘 후 당밖으로 나가 마을을 향해 절

을 한다. 그 자리에서 서낭신대를 잡고 서낭신이 내려, 공수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서낭님네가 굿을 받아 고맙기도 하고 괴씸하기도 하다고 하면서 금년 한 해에 대동안에 모든 재앙을 막아준다는 것이었다. 제자무(巫)가 당밖으로 제물과 술을 버렸는데 이는 잠신들을 위한 것이다.

이어 소지를 올리고 술잔을 비운 후 간단한 음복을 하였다. 소지는 서낭님 소지 뿐 마을사람 개인소지는 없다. 음복후 “서낭님 굿받으러 가십시다”고 하면서 서낭대를 앞세우고 징을 치면서 내려 왔다.

(9시 35분에 시작하여 10시 25분에 끝났다. 트럭을 타고 여서낭으로 돌아오니 개인조상이 더 차려져 있고 면장과 마을 유지들이 절을 하고 개인소지를 올리고 있었다. 인근에서 구경은 할머니들이 15명정도 자리잡고 있었다.)

(4) 서낭님굿

이 거리는 남서낭님을 여서낭으로 모시고와 좌정시키고 합심, 화해시키는 거리이다. 먼저 제관들이 나와 별비를 놓고 절을 하였다. 이어 주무가 나와 굿상앞에 허리숙여 인사를 하고 무가를 구송한다. 장구잡이가 뒷소리를 받으면서 흥을 돋군다.

“골맥이서낭을 모셔라~

골맥이서낭을 모셔라~

대한민국 삼척군 면으로는 미로면이요 리로는 하거노리요~

나랏님터전이요~ 각성받이~

성황님네요, 골맥이서낭님네~(계속)“

무가는 골맥이 성황님을 모시고 동네 각반, 직업별 운수와 풍농을 기원하는 축원의 내용이다.

(무(巫)가 무가를 구송하는 동안 구경은 할머니들이 나와 무(巫)의 머리카락이나 허리춤에 별비를 짚고 절을 하고, 개인 조상상을 차린 치성자들은 자주 술과 물을 갈아 놓고 절을 한다.)

무가를 마친 후 무(巫)는 구경꾼들과 농담도 주고 받는다. 이어 제물 위를 옷자락을 잡고 쓸고, 포를 들어 춤을 추다가 신칼로 찍기도 하면서 놀렸다. 제단벽에 기대어 두었던 남서낭대를 잡고 흔들다가 공수를 내렸다. “반거이 받았다~”는 말을 시작으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남성황당에서 내린 공수 내용과 유사 하였다.

서낭대를 여서낭나무와 맞대고 기대어 둔후 굿상위를 부채, 요령, 신칼을 들고 쓸어내고 절하는 치성자들의 몸 위도 쓸어 내렸다. 이는 서낭신이 복을 내리는 것이다. 제관과 이장도 들어와 절을 한 후 쌀점을 받았는데 이는 서낭님이 자손들 수명장수 하라고 명쌀, 복쌀을 내리는 것이다.

잠시후 주무(主巫)는 꿩과리 두 개를 바닥에 나란히 얹어놓고 한쪽에는 굿상에서 고기를 조금 떼어 젓가락과 함께 놓고 다른 한쪽에는 술잔을 두잔 올려놓고 앉아서 조용히 비손하였다. 고기를 조금 떼어 술잔에 넣고 무(巫)의 악기마다 술을 조금씩 찍어 바른후 밖으로 버렸다. 이것은 서낭님을 모시고 일하는 제자들과 기물들 모두다 편하게 해 달라고 빈것인데, 이는 마을 축원과 마을사람들에 대한 축원 후 무(巫) 자신들에 대한 축원을 한 것이다.

(서낭님굿은 10시 55분에 시작하여 11시 40분에 끝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

(5) 조상굿

꼬마제자인 남용녀무(巫)가 말했다. 장구쟁이의 “조상님네 모시어라~”는 이끔소리를 받아 “조상님네 모시자~”고 하며 무가를 구송하였다. 장구쟁이는 “하시나보세”, “내조상오시나”, “축원아~”하는 소리로 뒤를 받는다. 이는 제관들의 조상, 각성씨별 조상을 모시어 축원하는 곳이다.

(무가를 구송하는 동안 할머니들이 나와 무(巫)의 허리춤에 별비를 뽑아주기도 하고 “할무이들 팔다리 안 아프도록 해주시고~”라며 축원을 하자, 박수를 치며 잘한다고 한마디씩 하였다. 그 동안 주무는 굿상앞에 앉아서 할머니들 개인점을 치고 소지를 올린다.)

무가 구송후 잠시 쉬었다가 개인조상을 놀았는데 이는 서낭앞에 개인조상상을 차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무(巫)는 각 개인 제물상위의 포를 각각 하나씩 들고 돌면서 춤추고 칼로 찍기도 하면서 놀고 난 후 서낭나무 위에 엮어 두었던 삼베를 찢고 흔들다 접어들고 심한 도무를 하였다. 빠른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후 삼베를 젓상위에 엮어두고 요령을 흔들면서 도가할머니에게 공수를 내렸다. 이어 이장을 불러 공수를 내렸는데 작년처럼 놀랄일이 있겠다고 하면서 돼지머리 하나 없어서 갈비를 샀느냐고 호통을 쳤다. 미로면에 슬픈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물조심하라고 공수내리고 구경하는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축원한 후 술버리고 절하고 끝냈다.

(구경꾼들이 “꼬마잘한다”고 하면서 한마디씩 하였다. 이 거리는 11시55분에 시작하여 12시45분에 끝났으며 무(巫)들은 도가집에서 차려내온 점심을 먹고 그 사이 할머니들이 나와 노래를 하면서 놀이판을 벌였다.)

(6)세존굿

김희성무(巫)가 염주를 목에 걸고 한 손에는 세존모자를, 그리고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나와 춤춘 후 절하고 무기를 구송한다. 이는 부처님 신명이 도와주는 축원 회락곳으로 당금애기 무가를 구송한다. “수로자~ 수로자~ 어허 세존아~”로부터 시작하여 스님이 당금애기를 만나는 장면, 애기를 낳은 후에는 “아 낳으이 미역도 사야하고 쌀도 사야하고, 쌀 값은 새마을지도자에게 받아라~”고 하면서 세존모자에 쌀값을 받는다고 구경꾼들 사이를 돌아 다니고, 그동안 주무가 굿상앞에서 축원무가를 불렀다. “다시 세존 끝을 봐야지”하면서 굿상앞으로 돌아와 “보소, 인자는 아들 3형제를 키워봅시다”고 하고는 계속 무가를 구송하고, 장구쟁이는 “어허~세존아”, “축원합시다”라는 소리로 뒤를 받았다.

(발음이 불명확하여 사설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자 구경꾼들이 어수선했다.)

무가 구송 후 축원을 하고난 후 무(巫)는 세존모자를 쓰고 색동장삼을 덧입은 후 상 앞에서 요란한 도무를 하였다.

“중아 중아~ 중아 중아~

왜 그래 미치미치 하노 물어봐라~

최씨네 상좌야~ 정해생 내 상좌야~“

고 하자 주위에서 이장을 찾아 굿상앞으로 데리고 왔다.

“세존님네 오셨다가 상좌 찾아서 액 막아주고~

각성받이 육성받아 재수 주고~“

축원후 명값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장에게 모자를 빼뜯게 씌워놓고 별비를 내지 않으면 안벗겨 주겠다고 놀린다. 이장이 돈을 내자 모자를 바로 씌우고 장삼을 입히고 염주를 걸어준 후 덕담을 해주었다. 굿상앞에 절하고 춤추고 노래를 한 후 들어가게 하였다. 이

는 “재수받으라고 하는 굿방식”이라고 한다.

(세존굿은 1시 45분에 시작하여 3시 35분에 끝났다.)

(7) 놀이굿

세존굿후 “세준님이 이래 오셨다가 노래 한마디 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장구가락에 맞춰 놀이굿이 이어졌다. 주무(主巫)가 마이크를 잡고 “청산리 벽계수야~”를 부르자 김희성무(巫)가 “백구야 훨훨 나지를 마라~”를, 이어서 한순녀무(巫)가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마라~”를 불렀다. 장구잡이는 “장구 바라지 해주기 힘들다”고 하면서 흥을 돋구어 신나는 노래판이 되었다. 할머니들은 굿상앞에 앉아 계속 점을 친다.

(놀이굿은 3시 35분에 시작하여 4시 15분까지 계속되었다.)

(8) 성주굿

한순녀무(巫)가 고동색 쾌자를 걸치고 굿상앞에 나와 춤을 추고 절을 한다. 이어 성주풀이 무가를 구송하였는데

“성주양반을 모시어라~

성주양반을 모시는데~“

덩더꿍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고는 무릎위에 부채를 올리고 징채를 두드리는 시늉을 하고, 온갖 대목들을 모아 놓고 소리하는 흥내를 내며 굿판을 흥겹게 이끈다.

“각각터진 지신을 놀렸으니~

몸성주 재수주고 운수주니~

어허 세준아~ 성주님이 오셨다~ (계속)“

무가후 시주를 받고 덕담을 한다. 이어 성주님 오셨다가 한바탕 신명나게 노시다가 가신다고 하면서 춤을 추고 굿상위에 대구포를 하나씩 들고 놀린다. 칼을 던져 보고 요령과 부채를 들고 춤을 추고 굿상위에 대구포를 하나씩 들고 놀린다. 칼을 던져 보고 요령과 부채를 들고 춤을 춘 후 굿상앞에 나와 있는 제관들의 몸을 쓸어주면서 이 굿후에 3인이 들어 동네가 좀 시끄럽겠다는 공수를 내렸다. 술잔과 신칼을 들고 축언후 술을 버리고 제관들에게 명잔, 복잔을 한잔씩 돌리고 별비를 받은 후 끝났다.

(성주굿은 4시 20분에 시작하여 5시 30분에 끝났다. 잠시 쉬는 동안 하장면에서 열린 선거유세장에 갔던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소란하였다. 마을인부들은 오는대로 서낭앞에 절을 하였다.)

(9) 균웅굿

주무(主巫)가 균웅상을 다시 준비하였는데, 작은상 하나에 떡과 과자, 갈비를 얹고 갈비에 는 균웅칼을 꽂았다. 이를 놋동이와 함께 굿상 위에 얹어놓았는데, 놋동이 안에는 삼베와 오방기를 넣고 그 위에 대구포를 얹었다.

한순녀무(巫)가 고동색 쾌자를 입고 춤을 춘 후 인사하고 돌아서서 무가를 구송한다.

장구잡이:구마장사님을 모시어라~

무(巫):구마대감님 모시어라~

구마대감님 모시는데~

알성부중아 대한민국이고야~

삼척시구야~ 여계는 미로면 읍니다~

오월이라 초닷세날 정성을 드릴라고요~
 잠간만사 나오시던가~
 이승지키는 이 청춘아~
 남천길은가~
 천하방에게 금계치시고요~
 지하방에게다가 황토피고요~
 이정성을 드릴려고 대감님네를 모시네~
 천하대감님네 지하대감님네 욕심 많다 대감님~
 (중략)
 군웅아 대감님네 군웅아 신령님네~
 결립대감님네 산신대감님네 칠성대감님네요
 몸주대감님네 웅데기술에다가
 밥을 잡춰도 솔바닥에다가
 고길잡춰도 온 말에다가~
 한림학사가 대감되어 유지났구나 유지났구나
 평양감사도 유지났구나 전라감사도 유지났구나
 (중략)
 어쨌거나 장군 대감님네~
 이래 정성을 드리는데~
 돈이 많아 드리는 것도 아이고
 먹고 쓰고 남아 드리는 것도 아이고
 각성 육성받이 모두 자손들과
 안과태평을 시켜달라고 이래 정성드리는데~

해년마다 오월금단으로 이정성을 드리는데
 동네가서 어르는가 저시루가 나라찬대로~
 동네이장을 보드래도 각성 육성 받이 모도
 상대하던가, 번잡길살 막아주고
 말썽끝성도 막아주고 재물손재수도 막아주고
 소원성취대로 이뤄주시고~

어떤 대감이 내대감이요 산신대감님도 내대감이고
 칠성대감도 내대감이고 용신대감도 내대감이고
 수문대감도 내대감이고 결립대감도 내대감이야
 성주대감도 내대감이고 터줏대감도 내대감이고
 염주대감도 내대감이고 장사대감도 내대감이고
 젊은 대감도 내대감이고—(생략).

무가 구송후 대감타령 노랫가락으로 흥을 돋우고 덕담축언을 한다. 이어 빠른 장단에 맞추어 대구포와 상, 돼지갈비를 들고 놀린후 돼지갈비로 사실세우기를 한다. 상위에 종지뚜껑을 놓고 그 위를 소금으로 덮은 후 창에 쪼은 돼지갈비를 세웠다. 이장이 나와

별비를 냈다. 이어 무(巫)가 놋동이를 입에 물고 주무가 노랫소리로 축원을 하면서 이 동이를 떼는 사람이 운수가 좋다고 하자 구경꾼들과 제관들이 동이 안에 별비를 내었다. 주무는 계속 별비를 낼 것을 노래하고 장구잡이는 빠른 장단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장이 동우를 내려 그 위에 앉고 다른 제관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주무가 칼로 머리위를 쓸고 머릿카락을 잘라 버린 후 술을 버리고 칼을 던져 보았다.

한순녀무(巫)는 계속 오방기를 들고 이장과 제관, 새마을지도자, 도가, 개인치성자들의 순으로 기뻐하기를 하였는데 빨간기가 나오면 춤을 추었다. 이는 재수를 점치는 것으로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군용굿은 6시 15분에 시작하여 7시 10분에 끝이 났다. 술 취한 제관 한 사람이 나와 마이크를 잡고 유흥가를 불러 여흥시간으로 이어졌다. 무가는 20분 구송.)

(10) 잔반이 및 액맥이

(저녁식사 후 윗놀이 하는 패들을 그냥 두고 무(巫)들은 굿상앞에 앉았다. 주무는 뒤쪽에 자리 잡고 앉아 각각 개인 점을 쳐주는데 구경은 할머니들은 대부분 돌아가고 마을 주부들과 동네 할머니들이 20여명 남았다.)

김희성무(巫)는 소주잔에 술을 한 잔 부어놓고 젓가락으로 술을 찍어내면서 점을 치는데 술은 점을 칠 사람들이 가지고와 따라 주는 것이다. 각자가 원하는 무(巫)에게 가서 잔을 올리고 복채를 내면 무(巫)는 생(生)과 성씨를 물어보고 점을 쳐준다음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을 해준다. 이처럼 술잔을 받아놓고 점을 친다고 하여 ‘잔반이’라고도 하고, 개인조상상에 대한 치성을 한다고 하여 ‘상다짐’, ‘잔다짐’이라고도 한다.

이 잔반이를 하여 점괘를 내어보고 액이 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액맥이를 하는데 남용녀무(巫)에게 점을 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액맥이를 하였다. 그 중 한사람은 올해(‘91년)가 돼지해로 낱삼재라 다칠일이 생길것이라하여 본인이 입던 런닝셔츠에 「주소, 이름, 45세 정해생, 삼재팔환액소멸」이라고 써서 불에 태웠다. 이것을 “살을 쳐 낸다”고 한다.

굿당 밖 강가에서 액맥이를 하는 동안 다른 무(巫)와 치성자들이 굿상을 거두었는데 이 때 모두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골고루 조금씩 떼어 놋동이에 담아 버리는데 이를 “제면한다”고 한다.

(굿상에 차렸던 제물상에서 대구포와 과일, 떡, 쌀 등은 자루에 담아 무(巫)들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개인상을 차린 집에서 모두 거두어가며 그 자리에서 나누어 먹지 않는다. 저녁 8시부터 9시 35분까지 행해졌다.)

(11) 말명굿

굿상을 치우고 무(巫)와 마을부인들, 그리고 이장, 제관 등 이십여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무가 제면떡 바구니와 신칼을 들고 말명굿을 하였다.

말명굿은 “제면굿”, “계면굿”이라고도 하는데 무녀인 “제면각시” “말명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노래한다. 즉 무녀의 내력과 행적을 밝힌 굿으로 강릉지역과 울진지역에서는 이 제면할머니를 무조(巫祖)로 설정하고 있다.¹⁹⁾

무가의 내용을 보면 제면할머니의 행적은 다르나 심술이 많다는 점은 공통으로 표현된다. 최분옥무(巫)는 노래와 재담을 섞어가며 굿을 했는데 희극성이 뛰어난 재미있는 거리다.

19) 『중요무형문화재해설』—놀이와 의식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247쪽.

장구잡이:에~ 말명아~

巫:~제면각시왔다. 말명할머이왔다.

제면각시 거동뵈라, 열일곱에 신을 받아
스물일곱에 문을 열어 양반의 집에 정승의 집에서
말명각시 천지신명 돌보시니, 저각시 천지신명이 돌보시니
이 궁전 이 터전에 일러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을 갖다해서 신명이 안따라가나.
신명이 또 들본다. 야단났네 큰일났네
지독에다 가둔는데 여보시오 여보시오
천년을 가둬봐도 내가 숨이 안가니더
신명각시 나오더니 춤을 너울 너울 추는 모양하네
무당각시 출현하네 밤중에 무당이 나온다
(중략)

미로면 하거노리 오월이라 금단오날
굿한다는 말을 듣고 말명각시 여기 왔다.
(재담 소리로) 그런데 여보소 수천년을 묵어노이
내가 여 허영고 이를 쑥-빠지고 이래노니-
(이가 빠져 발음이 새는 말소리로) 여-하거노리 굿한다지?

장구잡이:에, 하마-

巫:며칠여 산에 묵다가 올 아침에 굿소리듣고 오이
어느놈이 장구를 치는지 세사-
(빠른 소리로 장단치며) 이래하잖나 세사-.
옛날에 우리는 이래했다.
(느린 가락으로 소리하고) 이래지.
또 어느 가시나가 이래는지 징을 치마 고리-고리-
이래는데 징을 치는게 맨날 뭐 그리 바쁜지
니미걸~니미걸~ 본래 이느무 제면각시가 심청시럽지.
니미걸~니미걸~ 이지랄하잖나. (구경꾼 웃음)
어메, 그것도 못쓰겠네, 어느년이 또 제팔자 치는지
(빠른소리로) 씨부랄 씨부랄~ 씨부랄 씨부랄 이란다.
(생략)

제면떡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춤을 춘후 “내가 이래 놀아보이 명주고 복주라 안카나, 어야~ 명받으로 오너라~”고 하고 당주, 이장, 부인들에게 제면떡을 옷에 받게 하여 떨어지는 갯수를 보고 점을 쳐준다. 장구잡이는 장단을 계속 치고 무(巫)는 “이떡 먹으면 고빨도 안한다”는 등의 축언을 하면서 나누어 준다.

어어서 무(巫)는 제단위에 두었던 삼베를 찾으면서 “이래 조상님네 왔다가 갖은 천을 끊어 준다~”고 하고 천가름을 하였다. 이는 조상굿거리에서 놀던 삼베를 잘라 조상에 예단으로 드리는 것이다. 무(巫)는 삼베필의 한쪽끝을 당주에게 잡게 하고 한쪽자락부터 10cm정도 폭으로 서로 끝이 이어지게 하여 칼로 자르면서 무가를 구송한다.

장구잡이:에에~ 천이야(뒷소리로 계속 받음)
주무(主巫):~ 끈일랑 갈라져라 오월금단오날
오성받이 육성받이 이래 조상님네 오셨다가
단배새천 받아가서 새천을 받아가서~
나가죽은 객사귀야 물에 빠져 죽은 수살귀야
애기낳던 해산귀야 목메죽은 절은귀야
총각죽은 몽달귀야 처녀죽은 아구귀야
모두 이 새천 받아가고~
거두지체는~
뜰에 맞은 석신귀야 번개맞은 목신귀야
불에 찌진 토신귀야 풍에 맞은 풍신귀야
오다가 죽은 귀신 가다가 죽은 귀신
모두이래 죽은 귀신 억울하게 죽은 귀신
(중략)
육십갑자로~ (육십갑자를 빠른소리로 구송)
이룽키 놓고 귀신들이가 노다가 소리하다가
이번 받아가주 갈 때 한 많은 말은 말고
니 가는데로 가라 그리 고이 가라
그래 고맙다.

모두 자르고 축언을 한 후 천을 불태웠다.
(강가에서는 제자 무(巫)가 액땀이를 하고 있고 주무(主巫)는 계속 거리굿을 진행한다.)

(12) 거리굿

장구잡이의 앞소리로 최분옥무(巫)가 계속 무가를 구송하였는데 내용은 천가름에서 불렀던 모든 억울하게 죽은 잡신들을 다시 불러 실제 귀신들을 몰아내는 시늉을 하면서 보내는거리다.

장구잡이:어~허 귀신아~
巫:모두 이래야~ 귀신은
콜땀이서낭님 뒤에 따라 땡기던 귀신도가고
저승 수배야, 장군부새야-수배야
뒤돌아보지 말고 이래 먹고 가고
거두지체는
육성받이 각성받이-.
말명뒤에 뒤따라 땡기던 귀신도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먹고 가고-
—
받아가주 훌쩍가고 다시는 오지말고
내년에나 다시 오시고,
거두지체는

나가죽은 객사귀는 물에빠진 수살귀는

(중략)

보소, 내가 귀신들을 모도 물려줬다.

물려주고 가는비, 새천도 이래모도 쟈게 해줬는데

사람으는 민적에 빠지만 사람축에 못든다

귀신으는 육십갑자에 빠지면 귀신축에 못간다

이르이 육십갑자 내가 다 불러준다.

(빠른가락으로 육십갑자를 다 부른 후 칼 던져보고 칼사리가 짝 나갔다고 하면서 뒤돌아볼 것 없이 서낭님전에 잘 응감하시고 가셨다고 하면서 고생하였다고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을 마쳤다. 그 사이 제자무(巫)는 굿상에서 제면한 음식들을 버렸다. 9시 35분에 말명굿을 시작하여 10시 35분에 끝났는데, 하루거리의 굿은 아침 9시에 시작하여 밤 10시 30분에 끝이 났다.)

IV. 서낭단오굿의 연행양상(演行樣相)

굿은 무(巫)의 연행(演行)(performance)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마을단위로 행해지는 마을굿은 한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의 표현으로 신의 사제자인 무(巫)에게 의뢰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제당(祭堂)이라는 구체적인 전승현장에서 연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굿이 벌어지는 현장은 무(巫)와 주관자이자 치성자인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웃의 구경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들이 굿도하고 치성도 드리고 또 놀이도 하고 구경도하는 말 그대로 “굿도 보고 떡도 먹는” 연행현장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행은 공동으로 조작하는 표현수단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영위하는 문화적인 표현행위인 것이다.²⁰⁾

이 장에서는 앞에 기술한 단오굿의 절차상의 구성과 내용을 다른 지역의 굿거리와 비교해 보고 또한 '92년에 행한 굿과도 대비해봄으로써 굿의 연행방식을 살피고 더하여 마을서당단오굿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1. 마을굿의 연행방식(演行方式)

굿의 연행방식은 굿이 이루어지는, 구성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굿은, 굿의 연행자인 무(巫)의 진행 뿐 아니라 그 전승현장과 연행현장²¹⁾의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도 함께 살피고 그 연행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이 단오굿의 굿거리절차는 강릉 단오제의 절차에 대비해 볼 수 있다.

- | | | |
|-------|----------------|-------|
| ① 부정굿 | ② 양주부체합심굿(축원굿) | |
| ③ 청좌굿 | ④ 조상굿 | ⑤ 성주굿 |
| ⑥ 장군굿 | ⑦ 산신굿 | ⑧ 칠성굿 |

20)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서울, 일조각, 1977. 136쪽. 민속문화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차원에서 연행이 문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1) 전승현장은 민속자료가 전승되는 거시적 현장으로서, 이야기, 동제, 민속극 등이 전승되는 마을 단위 이상의 지역공동체로 개방된 현장을 뜻한다. 반면, 연행현장은 연행이 이루어지는 미시적 현장으로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관, 동제가 울러지는 동제당, 민속극이 놀이되는 놀이마당 등으로 제한된 현장을 뜻한다.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203쪽.

- ⑨ 용신굿 ⑩ 지신굿 ⑪ 당고마기굿
- ⑫ 천왕굿 ⑬ 손님굿 ⑭ 심청굿
- ⑮ 제면굿 ⑯ 꽃굿 ⑰ 등굿
- ⑱ 대맞이굿, 환후굿

으로 ①~③은 서장(序章)인 맞이굿(환영)이며, ④~⑮는 본장(本章)으로 발원굿(기복, 기우, 기자, 제액, 수호)이고, ⑯~⑱은 종장(終章)으로 봉송굿(환송)의 내용이다.²²⁾

앞서 기술한 삼척서낭단오굿의 연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부정굿 ② 남(男)서낭님 모시는 굿
- ③ 서낭님굿 ④ 조상굿 ⑤ 세존굿
- ⑥ 성주굿 ⑦ 군웅굿 ⑧ 말명굿
- ⑨ 거리굿

이들 강릉단오굿과 비교해 볼 때 남(男)서낭님 모시는 굿은 양주부체 합심굿과 같고, 서낭님굿은 청좌굿과 같은 내용으로 맞이굿(환영)에 해당한다. 또한 세존굿은 당고마기굿, 군웅굿은 장구굿, 말명굿은 제면굿과 같은 굿거리로 산신굿, 심청굿 등은 생략되었지만 이 5거리가 주요 굿거리로 본장인 발원굿에 해당하며 거리굿이 종장으로 봉송굿(환송)에 해당한다. 이는 굿거리수는 적지만 맞이굿→발원굿→봉송굿이라는 연행구조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석출 굿패가 동해안 어촌마을의 별신굿에서 행한 사례를 보면 먼저 주문진 풍어제²³⁾에서는 다음과 같았다.

- ① 부정굿 ② 골매이굿 ③ 당맞이굿
- ④ 청좌굿 ⑤ 각덕조상굿 ⑥ 세존굿
- ⑦ 성주굿 ⑧ 심청굿 ⑨ 각덕손님굿
- ⑩ 제면굿 ⑪ 군웅굿 ⑫ 용왕굿
- ⑬ 거리굿

이들이 부산 동삼동 하리 풍어제²⁴⁾에서는 다음 거리를 연행하였다.

- ① 부정굿 ② 골매이제사
- ③ 골매이서낭님 모시는 굿 ④ 문굿(청좌굿)
- ⑤ 각덕조상굿 ⑥ 세존굿 ⑦ 성주굿
- ⑧ 용왕굿 ⑨ 손님굿 ⑩ 조상굿
- ⑪ 지신굿 ⑫ 뱃노래·꽃노래굿(액매이굿)
- ⑬ 거리굿

이 두가지 사례는 동해안의 어촌지역에서 같은 무(巫)패에 의해 서로 다른 전승현장에서 연행된 마을굿이다. 두 지역 모두 풍어와 어업의 무사안녕을 기원한 것이나 제의 기간은 주문진 풍어제는 3일 굿이고 하리풍어제는 하루굿으로 굿의 규모에 차이가 있었

22) 『중요 무형문화재 해설』—놀이와 의식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250쪽.
 23) 1990, 10. 27~10. 30(4일간). 김중대, 김명자 현장조사, 4년만에 행한 별신굿으로 27일밤(음력 9월9일) 제관들에 의한 洞祭가 진행되었고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부터 굿을 시작하여 10월 30일까지 3일굿을 하였다. 어촌계 주관이며 조상상 차림은 없었으나 마을사람들의 개인비손은 많았다. 그러나 놀이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4) 1992, 4. 2~4. 4(3일간), 김명자, 송민선 현장조사, 매년 음력 3월 초에 어촌계 주관으로 하루굿의 별신굿을 한다. 굿은 옛부터 김석출패가 맡아오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밤에 골매이 제사를 지내는데 마을에 있는 巫者부부에게 일을 맡겼다. 골매이제사도 이들 부부가 한 후 굿이 진행되었다. 다른 곳의 굿판과 비교하여 볼 때 개인치성자와 구경꾼도 소수였으며 놀이판도 없었다.

다. 그러나 굿거리의 순서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굿거리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굿 내용상의 구조도 맞이굿→발원굿→봉송굿으로 동일하게 행해졌다. 이렇게 제의 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굿거리의 수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굿의 규모에 따라 거리수가 조종되기도 하나 각거리의 해당 시간을 무(巫)가 조절하여 거리수의 많고 적음을 의도대로 행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각 굿에서 연행된 굿거리의 종류를 비교해 보면 같은 마을굿임에도 불구하고 어촌에서는 심청굿, 용왕굿이 굿의 중요한 거리가 되었다. 미로 마을굿에서는 제외된 내용인데 이는 바다와 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굿거리의 선택은 굿이 연행되는 제의 기간이나 굿의 규모 등 연행현장의 상황에 영향받기 보다는 전승현장의 환경에 따라 선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2년에 연행된 삼척서낭단오굿의 굿거리 절차와 연행한 무(巫)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정굿-최분옥주무(主巫) ② 남(男)서낭님모시는 굿-주무 ③ 서낭님굿-주무
- ④ 조상굿-남용녀무(巫) ⑤ 세존굿-김희성무(巫)
- ⑥ (성주굿),군웅굿-김용철무(巫) ⑦ 말명굿-김희성무(巫)
- ⑧ 상다짐(잔받이), 액땀이-주무 ⑨거리굿-주무

이것으로 대비해 볼 때 굿의 연행에서 굿의 거리수와 종류는 동일하게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92년 굿에는 한순녀무(巫)가 빠지고 대신 장구쟁이로 정은채씨가 참여하여, 한무(巫)가 연행하였던 성주굿과 군웅굿을 장구쟁이 역을 맡았던 김용철무(巫)가 연행하였다. 김용철무(巫)는 전에도 굿거리를 맡아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 마을에서는 처음 굿거리를 맡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굿거리를 연행하였던 한무(巫)보다 미흡하였다. 성주굿은 매우 간단하게 짧은 무가구송으로 넘어가고 군웅굿에서는 절→춤→무기→떡담→축언→제물놀림→사실세움→늦동이물기→축언→오방기뿡기로 그 방식은 동일하게 연행하였으나 무가의 사실이 짧고 떡담, 축원의 내용도 미비하였다. 따라서 구경꾼을 끄는 흥돋움에서도 미숙하여 주무가 도움을 주었다. 또한 '91년에는 주무가 하였던 말명굿을 '92년에는 김희성무(巫)가 하였는데 그 연행의 깊이에서 큰 차이가 났다. 이로써 볼 때 굿거리의 연행은 그 굿거리를 맡은 무(巫)의 숙련도, 능력 등 개인 차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타 연행민속의 창자나 화자와 같은 연행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행상황을 비교해 볼 때 '92년의 굿판은 '91년에 비해 산만하고 일찍 끝났는데 이는 각거리의 진행시간도 단축되었지만 별비를 받아내는 시간, 놀이굿의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91년에는 제관들에게서 별비로 굿의 경비를 받았으나 '92년에는 처음부터 ahrtehds으로 경비를 받을 것을 계약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기 위한 시간이 단축되었고, 따라서 제관의 참여도 그 횟수가 적었으며 치성자들의 호응도 적었다. 또한 제자무(巫)의 불참에서 오는 무(巫)의 심리 상태가 굿전체의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행현장의 상황이 굿판의 전체적인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2. 미로 서낭단오굿의 특징

이상에서 삼척미로 서낭단오굿의 몇가지 특징을 밝힐 수 있다.

먼저 삼척미로 서낭단오굿의 내용상의 특징은 서낭굿으로서의 무(巫)굿과 조상상차림,

잔반이, 액택이 등의 개인치성제, 그리고 옷놀이, 씨름, 그네뛰기 대회의 민속놀이가 함께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한 마을을 단위로 한 단오굿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굿이 벌어지는 이 제당은 마을서낭을 위한 굿판으로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조상을 위한 개인치성제장으로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놀이판으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이 마을굿의 연행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보면 굿을 진행하는 무(巫)와 반주를 맡은 짚이, 그리고 굿의 주관자인 마을사람들—마을에서 선정되어 굿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마을 대표자들과 개인조상상을 차리고 개인치성을 드리는 적극치성자들, 그리고 놀이에 참여하는 놀이꾼들—과 이웃마을에서 “단오보러온” 구경꾼들이다.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은 단순한 구경꾼이라기 보다 굿상에 별비를 놓고 절을 하고, 또 개인소지를 올리기 위해 온 치성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 구성원이 서로 잘 어울려야만 굿판도 제대로 흥겹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굿판은 여성들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들의 전용판이며 젊은 부인들은 자리에 앉지 않고 뒷전에서 서 있다.

여기에서 굿을 맡은 무(巫)패는 이 마을 출신으로 19년째 이 마을의 굿을 하고 있어 마을사정과 마을사람들 개인의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마을굿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을사람들과 단골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巫)는 이 마을의 동신(洞神)인 서낭신(神)과 함께 묶인 사제자로서 기능하며 이러한 무(巫)의 존재는 이 마을굿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전승되게 하는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마을굿의 구성원 중 이웃 마을에서 오는 구경꾼이자 치성자들의 존재도 굿의 전승을 강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고 보며 이로써 이 일대에서 차지하는 이마을의 위상도 고조되는 것이다.

이 무(巫)패들이 연행하는 굿거리를 볼 때 굿의 내용과 연행방식, 의상 등에서 동해안 지역의 무패들과 유사하나 그에 비해 무(巫)패의 규모가 작고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무(巫)의 개인차가 있어 이 무패의 굿 중에서 최분옥주무가 연행한 말명굿은 무가의 사설과 함께 재담, 연기가 따르는 희극성이 매우 풍부한 내용으로 주목된다.

제의날이 오월단오라는 단오굿으로서의 의미는 굿의 내용과는 깊은 관련이 없으나, 단오날의 민속놀이인 그네뛰기와 씨름 등의 놀이판을 굿판과 어울리게 하였다.

마을의 서낭을 모시는 마을굿으로서 다른 지역의 굿과 비교해 볼 때 무(巫)굿 전에 마을에서 선정된 제판들에 의해 행해지는 유식형태(儒式形態)의 당제(堂祭)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로 제판을 맡기를 피하고 남자의 굿판 참여를 꺼릴뿐만 아니라 어촌마을과 생업환경이 다른데서 오는 신앙심의 정도 문제 등이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굿의 내용면에서 볼 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서의 공연성보다는 조상상차림, 잔반이, 액택이 등 개인치성의 비중이 다른 마을굿에 비해 크게 행해져 무(巫)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례로서의 종교적 제의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마을굿이라고 하겠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삼척미로 서낭단오굿의 제의절차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현재까지 드물게 전승되고 있는 한 마을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단오굿으로서의 마을굿의 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다른 마을굿과 비교해 봄으로써 마을굿의 연행방식과 미로 서낭단오

굿의 특징을 밝힐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른 전승현장에서 연행된 다른 무(巫)패들의 굿과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필 수 있었다.

1. 굿의 내용은 굿패나 굿의 규모, 거리수 등에 관계없이 맞이굿→발원굿→봉송굿의 구조로 연행된다.

2. 굿거리의 연행수는 굿의 규모, 제의기간에 영향을 받기도 하나 무(巫)의 의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3. 한 굿에서 연행되는 굿거리의 종류는 연행현장의 상황보다는 전승현장의 인문·지리적 환경에 따라 선택된다.

또한 같은 전승현장에서 연행된 같은 무(巫)패들의 굿과 대비해 봄으로써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같은 마을에서 행한 같은 제의기간이었으므로 굿의 거리수와 순서, 각 거리와 연행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2. 각 거리의 연행은 그 거리를 연행하는 무(巫)의 개인적인 숙련도나 능력에 따라 무가사설의 풍부함, 축원의 내용, 재담, 분위기의 고조 등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무(巫)는 여타 연행민속의 화자나 창자와 같은 연행양상을 보인다.

3. 굿판 전체의 분위기라던가 무가 구송의 길이, 놀이굿, 축원굿의 삽입, 굿의 진행시간 등은 연행현장의 상황과 관련된다. 이때, 연행현장의 상황에는 무(巫)패들의 결속관계, 굿경비 문제, 제관, 치성자들의 참여 정도, 마을사람들의 호응도 등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이로써 살핀 미로마을 서낭단오굿의 특징은

1. 먼저 내용상 특징은 서낭굿으로서의 무(巫)굿과 개인치성제, 그리고 민속놀이가 함께 이루어지는 마을굿이란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서낭당은 굿판, 제장(祭場), 놀이판으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된다.

2. 이 마을굿을 맡은 무(巫)는 마을사람들과도 단골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동신(洞神)인 서낭신(神)과도 묶인 사제자로서 존재하여 미로마을굿의 전승문제와 관련된다.

3. 굿판의 주구성원은 할머니들이며, 굿판은 개인치성제와 함께 시어머니에서 며느리인 여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웃마을에서 ‘단오 보러오는’ 노인들도 굿의 주요구성원으로서 이 마을굿의 전승을 강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

4. 무(巫)패의 규모는 적으나 동해안 지역 무(巫)굿의 한 가지로 자리하며 특히, 최분옥 주무의 말명굿거리는 재담과 연기가 어우러진 희극성이 풍부한 거리다.

5. 단오굿으로서의 의미는 굿의 내용에서 보다는 단오날의 민속놀이인 그네뛰기와 씨름 등의 놀이판을 굿판과 어울리게 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6. 서낭마을굿으로서 다른 마을굿과 비교해 볼 때 유식형태(儒式形態)의 당제(堂祭)가 미약하며, 현재는 유식형태로 진행되는 정월성황제사와 무식(巫式)의 5월 서낭단오굿이 구분되어 있다.

7. 단오굿으로 비교해 볼 때 한 마을을 단위로 전승되고 있는 마을굿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공연성보다는 종교적 제의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굿이라 하겠다.

8. 이러한 마을굿의 목적으로 공동체성원의 결합 촉진, 동일신 숭배를 통한 동유의식 강화, 집단공동의 적방어, 집단의 안녕과 퇴액(退厄), 초복(招福)²⁵⁾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오늘날 특히 요구되는 기능은 공동체성원의 단합 즉, 지역적 통합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을굿 전승의 주요요인이 되는데, 특히 오늘날 새로이 주목되고 있는 우리 민속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마을의 역사적인 전통, 민속의 전승에 대한 자부심도 주요한 이유로 자리잡고 있음을 미로 마을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실상 미로 서낭단오굿의 내용은 서낭굿과 개인치성제, 그리고 민속놀이를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었으나, 서낭굿과 개인치성제는 마을신앙과 집안신앙과의 유기적 관련성에 주목하여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또한 민속놀이는 그네뛰기, 옷놀이, 씨름이 등수에 따라 그릇, 밀가루, 식용유 등의 상품을 두고 시합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풍물이 따르는 흥겨운 놀이판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 역시 놀이 방법, 시합방식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현행되고 있는 민속놀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으나 다음으로 미룬다.

참 고 문 헌

삼척군 삼척군지, © 198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重要無形文化財解説』—놀이와 儀式篇—, 1985.

김선풍, 『강릉단오굿』, 悅話堂, 1971.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77.

李能和 지음 李在崑 옮김, 『朝鮮巫俗考』, 東文選, 1991.

이창식, “三陟地方 烏金簪祭의 構造와 意味”, 『江原民俗學』, 강원민속학회, 1990.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 “說話의 現場論的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주강현, 『굿의 사회사』,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河孝吉, “西海岸地方 豐漁祭의 形態와 特徵”, 『中央民俗學』 제3호, 민속학연구소, 1991.

25) 주강현, 『굿의 사회사』,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177쪽.

© 1992. 이지누



1. 서낭굿-공수내림(최분옥 주무(主巫))



2. 군웅굿-사실세움(최분옥주무(主巫)와 김용철무(巫))



3. 오방신장기뽑기
(김용철무(巫)와 치성자)



4. 놀이굿-(김희성무(巫)와 정은채악사)



5. 거리굿-천가름 ▶
(최분옥주부(主巫)와 도가)